



주 제:	“기도”	“연중 제 17 주일 (다해)”	2007년 7월 29일
복음 묵상:	루카 11,1-13	창세 18,20-32	콜로 2,12-14

기도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에 대한 오해부터 풀어야 합니다. 기도를 마치 자동판매기에서 물건을 사듯이, 특정한 기도를 정해진 양과 순서대로 바치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게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주님과 별이는 겸손하면서도 끈질긴 청원 행위에서 알 수 있듯이(창세 20-32 참조), 기도란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매우 ‘인간적’이며 지속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기도’를 통해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가르치십니다.

‘주님의 기도’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느님을 먼저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이 기도는 일용할 양식, 죄의 용서 그리고 유혹에서 보호와 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뒷부분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나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기를 청합니다. 말하자면 나의 기도 지향이 아니라 하느님의 지향들이 우선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하느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자신의 뜻을 거기에 맞추는 것이 기도의 근본정신입니다. (서울 김영국 신부님 강론중에서)

1. 성가대 소식

30 주년 기념 음악회에 합창곡 최종 선곡

기도(Preghiera)	이태리 가곡	F.P. Tosti
이스라엘 백성의 노래(Corro di Schiave Ebrei)		G. Verdi
Ave Verum Corpus	성가	William Byrd
Ave Maria	G. Caccini 작곡	최 병철 편곡
그리운 금강산	우리민요	최 영섭 작곡
옹헤야 (보리 타작)	우리민요	김 희조 편곡
신고산 타령	우리민요	김 희조 편곡
거제도 뱃노래	우리민요	김 희조 편곡

2. 가족 동정

- **축 환영** 오랫동안 쉬시던 **강승일 (아니케토)형제님**과 **박정은(로사) 자매님**이 다시 성가대로 돌아오셨습니다. 또한 **이윤정(올라라)자매님**과 **한문숙(로사) 자매님**께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새로이 한자리에 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하셨으니 축복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 매주 도나스와 커피를 봉사해 주시던 **김영숙 아네스 자매님**께서 건강의 이유로 LA에 사는 자제분택으로 7/27 일 이사하셨습니다. 자매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어디서나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 **윤안도 요셉형제님**이 7/29 아침 약 2 주간의 여정으로 서울로 출장을 떠나십니다. 여행중에 주님 함께 하시어, 모든 일 원만히 잘 지내고 건강히 기쁜여행되시길 기도합니다.

3. 기도 요청

**30 주년 기념 음악제의 원만한 개최를 위하여**  
 음악제가 주님의 뜻대로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잘 이루어 질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연습에 적극 참여하여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음악제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휴가 예정자

본당 창립 30주년 기념식까지 가능한대로 휴가를 9월 이후로 밀어 주시어 연습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가족은 사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 행주 요세피나: 7/29-8/5  
 윤 안도 요셉: 7/29-8/13  
 최 주님 예로니모: 7/30-8/6  
 최 효원 도미니카: 7/30-8/6

#### + 복음 [루가 10,25-37]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벼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벼를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세 개만 꾸어 주게. ○ 내 벼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벼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 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 1분 명상

#### “주님의 기도 묵상”

"하늘에 계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 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라고 하지 마라, 자기 이름만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하지 마라, 항상 네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재물을 쌓아두려 하면서...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라고 하지 마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양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지금도 영원히 계실 주님께는 아무 것도 해드리지 않고 있음을...

우루과이의 한 성당에 새겨져 있는 ‘주님의 기도’ 에 관한 묵상이라고 합니다.